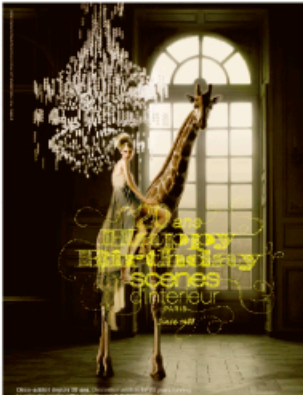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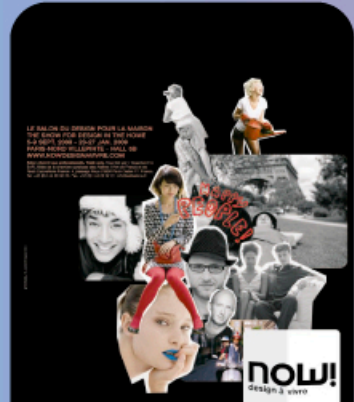
MAISON & OBJET 2013
아웃도어_인도어 관의 비주얼



프랑스어 베르나르가 제시한 트렌드 키워드



셴느 뤁페리에르(Scenes d'interie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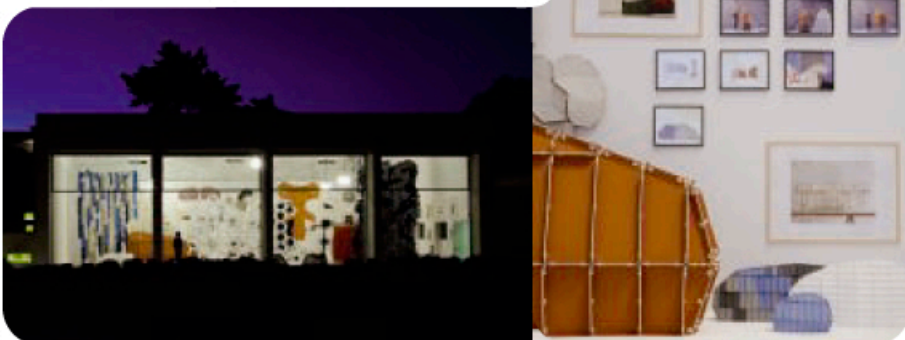
어바니티(Urbanity)&크리에이션(Creation)을 주제로 한 나우! 디자인 아 비브르

다가오는 9월, 파리에 주목하라

어김없이 올해 9월에도 프랑스 파리 노르 빌뱅프에서 <메종&오브제(Maison&Objet)> 전시가 열린다. 독창성과 혁신이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은 이 전시에서 각 산업 분야의 트렌드 리더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 트렌드 방향, 유행할 컬러, 차세대 직물, 새로운 형태와 신소재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간다. 오는 9월 <메종&오브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아웃도어_인도어(Halls 7A&7B) 전시에 주목할 것. 라운지가 꾸며진 새로운 홈의 등장으로 더욱 풍성해질 아웃도어_인도어관은 고급 호텔과 럭셔리 스파, 트렌디한 레스토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 전문가들을 위한 전시장이다. 파트리시아 우르퀴올라, 장 마리 마스, 부를렉과 캄파나 형제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최근 제품과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부스 디자인도 선보인다. 또한 트렌드관에서 제시하는 3가지 트렌드 키워드 역시 놓치지 말 것. 사치스러움, 격식, 꾸밈을 포기하는 이번 시즌에서는 '심플'이 주제다. 프랑스어 베르나르(François Bernard)는 '슬로 테크(Slow Tech)'를 키워드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천천히 가치를 제안한다. 지난 세기 디자이너의 산업적인 미학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일, 부드럽고 유연한 테크놀로지가 주체가 된 자연성의 재해석이 그 내용이다. 넬리 로디(Nelly Rodi) 트렌드 연구실은 주제를 '메트로퓨리탄스(Metropuritan)'로 결정했다. 신청교도들을 상기시키는 키워드는 완벽한 심플함에 대한 공약과도 같다. 엘리자베스 르리슈(Elizabeth Leriche)는 '팜 라이프(Farm Life)'를 키워드로 급성장하는 도시화 시대에 농경 세계의 아름다움, 땅으로의 회귀를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나우! 디자인 아 비브르(Now! Design à Vivre)와 Hall 5B에서 열리는 레 탈랑 아 라 카르트(Les Talents à la Carte)를 지나치지 말 것. 올해 레 탈랑 아 라 카르트는 인도의 창의성에 집중하고 있다. 뛰어난 자질을 가진 인도 디자이너들의 출현과 무시할 수 없는 인도 대륙의 힘이 그 배경이다. 가구, 도자기, 펠트 및 염색 제품, 채색된 직물, 고급 구리 제품, 세련된 소품들과 그 창조적인 디자이너들을 만날 수 있다. 기간은 9월 5일부터 9일까지. 문의 02-522-6447(메종&오브제 국내 사무국 GLI 컨설팅), www.maison-objet.com 에디터 정수운

부를렉 형제의 판타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디자인에 주목하는 로낭&에르완 부를렉 형제가 또 한번의 예술적인 디자인 전시 <로낭&에르완 부를렉, 에타프(Ronan and Erwan Bouroullec, étapes)>를 준비 중이다. 그들은 자신의 모듈형 디자인 재료를 끊임없이 조합하고 재구성하면서 기괴한 형태와 범상치 않은 스케일을 만든다. 텍스처와 컬러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로낭&에르완 부를렉의 디자인 안에서는 사용자가 디자인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능성을 끊임없는 전시로 실득하고 있다. 9월 21일까지 프랑스 이에르에 있는 빌라 노아유에서 시작하는 전시는 오는 10월 스위스 로잔을 거쳐 내년 초 벨기에 오르뉴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www.villanoailles-hyeres.com, 에디터 박소영



사려 깊은 냅킨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서 무이를 통해 폭신한 체스터 소파와의 상관관계를 지닌 '소프트 램프(Soft Lamp)'를 선보인 스페인 출생 디자이너 헥터 세라노(Héctor Serrano). 일상적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의 유쾌한 아이디어 속에는 사물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앞서기에, 디자인은 단순한 웃음 이상의 용도를 지닌다. 따끈한 최신판, 디너 냅킨 '드레스 포 디너 냅킨즈(Dress for Dinner Napkins)'를 통해 그의 사려 깊음을 잠시 감상해보길.

www.hectorserrano.com 에디터 한예준